

제13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자연을 품다’ 주제로 11월 6일~12월 5일까지 전북지역 31개소서 6개 부문 37개 행사 진행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이선홍)는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 간 전북지역 31개소에서 개막행사, 전시행사, 학술대회등 6개 부문 37개 행사로 2,900여명이 참가, 제13회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회제를 맞는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주제는 ‘자연을 품다(回歸自然)’로 정했다. 올해는 서예의 본질을 잃지 않는 가운데 시대성 및 서가의 개성이 배가돼 시공을 넘나드는 공간과 공명이 있는 행사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서예의 본질과 변화의 길을 추구 하며 영상전시 도입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 하고 미래 지향적 전시를 선도해 전북서예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적 공황과 공포를 몰고 온 코로나19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전시공간의 확대와 개막행사 및 국제 학술대회의 온·오프라인 개최로 빠르게 변화 되는 전시 환경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전시행사로 개최되는 ‘서예의 역사를 말한다’전은 20개국 110명의 작가들이 모여 서예의 근본적 정신을 바탕으로 고대, 근대, 현대의 서체별 변화와 시대성을 작품으로 선보임으로써 서예의 흐름을 조망하고, ‘나랏말싸미’전은 훈민정음 창제이후 궁서체 서예의 시대별 변화를 표현해 이번 행사의 주제를 추구 한다.

일반 관람객에게도 한 발짝 다가서는 전시도 기획돼 있다. 대중의 삶과 애환이 담긴 노래가 서예작품으로 변신하며 음악과 함께 관람하는 ‘선율의 춤’전, 문자 디자인의 실용적 가치를 재해석 해보는 디지털 글꼴 전, 생활속으로 한 발 들어가 현대의 주거공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소품화한 ‘서예의 작은 대작’전은 일반 관람객도 무리 없이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전시가 될 것이다.

예향이며 서예의 고장인 도민들의 특권도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 간 전북지역 31개소에서 개막 행사, 전시행사, 학술대회등 6개 부문 37개 행사로 2,900여명이 참가, 제13회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12회 2019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막식 모습)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서예, 전북의 산하를 말한다’전, 전북서예의 한마당 집인 비엔날레 서예가 없으랴 전, 미술관, 서예 이야기 전 등은 전시지역 확대와 전북 서예 인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서예 문화를 함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시도한다.

또한, 이번에 새로이 기획된 탐방 프로그램 ‘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 해설사와 함께 전북서예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 보는 행사로 솔솔한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예의 역사와 현대의 흐름 미래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세계적 명성을 가진

서예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서예 학술대회’도 열리며, 학술공모전을 통해 국내 서예학의 학술적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한 토대의 장도 마련된다.

2021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오는 11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최고의 서예대잔치로 세계의 서예가와 관람객을 유혹한다.

이선홍 조직위원장은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앞으로 더욱 더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정은성 기자

국내 첫 배우 뮤지컬, 전주에 온다

‘스파이크 어게인’ 25~26일 이틀간 우진문화공간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5일~26일 이틀 간 뮤지컬 ‘스파이크 어게인’을 총 3회에 걸쳐 우진문화공간에서 선보인다.

전주 이야기 자원 공연회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0년 1단계(제작 기획서 심사)부터 2단계(창작시나리오 심사), 3단계(쇼케이스 공연 제작 지원)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4단계인 시범 공연 제작 지원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국내 최초로 여자 배우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스파이크 어게인’은 ‘배구’와 ‘시간 이동’을 소재로 삼은 판타지 이야기다. 무대를 뜨겁게 달굴 열정의 랠리를 ‘록 뮤지컬’로 표현했다.

‘스파이크 어게인’을 무대에 올리는 박예소 연출가는 “2020년 1단계부터 공연예술을 위해 단계별로 지속적 지원을 해 준 전주문화재단에 감사하다”며, “전주의 이야기



로 잘 짜인 스토리와 감동, 그리고 재미까지 모두 갖춘 우리나라 여자 배우 최초의 뮤지컬을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이며, 문화티켓(www.culture.go.kr)에서 ‘스파이크 어게인’을 검색 후 예약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7월 1일까지 13개 강좌 130명

무주군은 오는 7월 1일까지 무주문화원의 하반기 문화학교(7월 12일~ 순차적 개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13개 강좌 130명으로 수강료는 강좌 당 3만 원(강좌별 재료비·문화원 가입비 2만 원 별도 본인 부담)이다.

무주문화원에 따르면 식물의 ▲아름다움을 수채화나 색연필로 표현을 해보는 ‘보타니컬(월, 09:00~12:00)’과 ▲동초수건 출(월/목, 10:00~12:00), ▲‘시낭송(월, 18:30~21:30), ▲‘해금(화, 18:00~21:00), ▲‘손뜨개(목, 09:00~12:00), ▲기초 화선학과 실용음악의 이해를 통한 ‘음악 만들기(목, 18:00~21:00), ▲‘셀프네일아트(금, 09:00~12:00)’ 등 7개 강좌가 신규로 개설됐으며 ▲‘통기타(화, 09:00~12:00)와 ▲색을 칠하는 대신 아크릴 물감을 섞어 작품을 만드는 ‘아크릴 푸어링(화, 09:30~12:30), ▲‘서예(화, 18:00~21:00), ▲‘칼럼버와 함께 하는 음악여행(화, 18:30~20:30), ▲재봉틀을 활용해 의류 리폼을 해보는 ‘재봉틀 업사이클링(목, 18:00~21:00), ▲‘민화(목, 18:00~21:00)’ 등은 상반기에 이어 진행이 된다.

무주문화원 맹감상 원장은 “군민들이 소양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며 “연강을 중심으로 군민들이 배우기를 희망하는 강좌를 새롭게 개설해 기대감을 높였다고 전했다.

하반기 문화학교 수강문의(063-324-1300) 및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본인만 가능)는 무주문화원으로 하면 되며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좌 당 수강 인원을 10명으로 하며 거리두기와 발열 여부 확인, 강의실 소독, 출석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욱 팀장은 “군민 모두가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정성을 쏟고 있다”며 “그 일환인 하반기 문화학교도 코로나19 때문에 합류하신 군민들의 일상에 활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올 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총 6억1,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문화원과 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문화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공연, 전시 등), ▲자매결연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지원한다. 특히 문화원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60여개 동아리를 지원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또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연총 1인 10만 원)등은 문화 복지 실현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영화를 사랑하는 도민 위한 ‘영화아카데미’

국립전주박물관·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7월 7일~8월 2일까지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과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일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도민 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영화아카데미’를 총 6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영화배우, 감독, 교수 등 현재 영화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 영화의 미학과 영화연기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7월 7일 배우 이순재를 시작으로 정초신 감독, 고광모 교수 등의 강사가 진행될 예정이

다. ‘2021년 영화아카데미’ 강좌는 선착순으로 50명 모집하며,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홍진근 관장은 “영화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분	내용
교육일시	7월 7일(수) 7:20~8:00, 7월 14일(수) 7:20~8:00, 7월 21일(수) 7:20~8:00, 7월 28일(수) 7:20~8:00, 8월 4일(수) 7:20~8:00, 8월 11일(수) 7:20~8:00
교육내용	1. 영화의 이해 (7월 7일, 7월 14일) 2. 영화의 미학과 영화연기에 대한 이해 (7월 21일, 7월 28일) 3. 영화의 미학과 영화연기에 대한 이해 (7월 21일, 7월 28일) 4. 영화의 미학과 영화연기에 대한 이해 (7월 21일, 7월 28일)
교육장소	국립전주박물관 대강당
모집인원	50명
신청기간	2021.06.22 10:00 ~ 2021.07.05 17:00
신청방법	●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신청 교육 > 성인 인문인기 > 집중수업 신청 ● 전화신청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운영지원팀 (010-2652-8683) ● 방문신청 국립전주박물관 (063-220-1039)

*교육활동에 대한, 강사인건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음

since 1898

도inking을 주는 병원, 당신곁에 있겠습니다

진료
Treatment

봉사
Service

선교
Mission

공지
Pride

예수병원은 1898년에 설립되어 123년의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호남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최근 내외부 시설 확충으로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는 예수병원은 호남 유일의 암 치료 전 부분 1등급 평가를 비롯해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예수병원은 앞으로도 예수님을 본받아 환자중심, 진료중심, 선교중심을 기조로 환자경험중심의 진정으로 봉사하며 예수병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따라갈 것입니다.

5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 대표전화(접수) 1899-1843 / 063-230-8114 / 080-077-7575